

百濟 瑞山 磨崖三尊佛像의 圖像 解釋

문 명 대*

차 례

I. 머리말	V. 樣式的 特徵과 編年
II. 研究史	VI. 圖像解釋(名稱)과 意義
III. 造成背景	VII. 맺음말
IV. 現狀과 圖像形式	

I. 머리말

한국 최고 걸작의 마애불이자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인구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瑞山 磨崖三尊佛像은 泰安 磨崖佛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백제불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사실 이 불상은 불상이 수용된 지 근 3세기만에 이룩한 한국적인 石佛像으로도 큰 의의가 있어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 불상에 대한 연구는 발견한 직후에 쓴 黃壽永 교수의 논문 한편과 1980년에 외국인 학자 조나단 베스트(Jonathan W. Best)의 논문 한편만 있을 뿐 그 중요성에 비하여 미미한 성과 밖에 없는 셈이다. 따라서 이 불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조성배경에서부터 도상해석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제대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런 점에 중점을 두면서 글쓴이가 1965년부터 지금까지 근 30년 이상 서산 마애불을 수십 차례 조사하고 연구한 성과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서산 마애불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서산 마애불상의 연구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둘째, 조성배경을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의 관점에서 찾아보고 셋째, 삼존불의 도상적 특징을 다른 불상들과 비교 분석하고 넷째, 양식적 특징과 편년을 삼국시대의 불상과 중국 남북조양식과 비교 논의하고자 하며, 끝으로 서산 삼존상의 圖像解釋과 의미를 살펴 이 삼존상의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 東國大學校 教授

II. 研究史

瑞山 磨崖三尊佛像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1959년 4월말 金庠基, 李弘植, 洪思俊 선생 등에 의해서였고, 이어 5월 26일 黃壽永, 金載元 박사가 정식으로 조사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 발견은 文化財발견이 크게 뉴스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조사한 황수영 교수는 같은 해 8월, 『震檀學報』 20호에 「瑞山百濟磨崖三尊佛像」(圖 1)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彫刻史 論文의 효시를 이룬바 있다.¹⁾



圖 1. 瑞山 磨崖三尊佛像

이 글에서 黃壽永교수는

“이상 三尊像은 모두 동시의 造成으로 推定되는 바 그 연대는 西紀 600年頃 三國時代 末葉 百濟時代로 比定하여 金후에 있어서의 考察을 進行키로 하겠다. 이 三尊은 樣式上 中國 南北朝 특히 그 末期의 影響을 많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北魏代를 비롯하여 百濟代에 이르는 造像에서 그 樣式源流를 찾아야 하겠고 그 作風에 있어서 南朝의 遺例도 아울러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²⁾

라고 하여 600년경 석가·미륵·관음의 백제삼존불상으로써 北齊·周 내지 南朝의 影響이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간략하고 소략한 평가이지만 큰 테두리에서는 아직도 이견이 없는 셈이다.

그 후 김원룡 교수는 석가불과 미륵, 관음보살 등 삼존불로써 7세기 중엽경의 백제작으로 밝힌 바 있다.³⁾

그런데 이런 설은 이후 상당 기간 통설이 되다시피 되었다. 조나단 베스트도 이 설을 따라 1980년의 논문에서 석가불·미륵·관음보살상의 삼존상으로써 620년대의 백제작으로 논의했는

1) 黃壽永, 「瑞山百濟磨崖三尊佛像」, 『震檀學報』 20호(1959. 8) (『韓國佛像의 研究』(三和出版社, 1973), pp. 111~116 재수록)

2) 註1 참조.

3)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① 金元龍, 『韓國美術史』(汎文社, 1968), p. 110 및 『新版 韓國美術史』(서울대출판부, 1993), p. 85.

② Kim and Kim, Treasures of Korea Art, pp. 110~111.

데 좀 더 설명적인 것이 다른 편이다.⁴⁾

이에 대해서 글쓴이는 석가·미륵·제화갈라의 授記三世佛이며, 600년 전후의 백제불상으로 써 法華經思想에 근본을 둔 의미심장한 삼존불로 평가한 바 있다.⁵⁾ 이 서산 마애불에 대한 학자별 조성연대추정과 명칭을 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학 자	造成年代	佛像名稱	기 타
1	黃壽永	600년경	釋迦·彌勒·觀音	
2	金元龍	7세기 중엽	"	
3	Jonathan W. Best	620년대	"	
4	김리나·강우방	7세기 중엽	"	
5	文明大	600년 전후	釋迦·彌勒·提華羯羅	

Ⅲ. 造成背景

서산 마애불은 伽倻山 西麓에 위치하고 있다. 가야산(해발 678m)은 예산 및 해미와 서산의 접경지대에 象王山과 연이어 있는 서해의 名山으로 알려져 있다. 象王山도 가야의 뜻인 象頭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음역과 의역만 다를 뿐 같은 가야산으로 이해되었던 것 같다. 또한 海印寺가 위치하고 있는 합천 가야산과 함께 한국의 양대 가야산으로 쌍벽을 이루고 있으면서 같은 崔致遠이 은거했다는 전설이 서려 있는 역사적인 산이다.⁶⁾ 특히 신라 때에 신라의 서쪽을 지키는 西鎭으로 삼았고 매년 봄, 가을마다 국가에서 제사지내게 할만큼 중시했던 산이었는데 아마도 百濟때부터 국가적인 鎭山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伽倻山은 인도의 가야산(Gayaśirasa)에서 유래하는데, 이곳은 부처님이 6년간의 고행 끝에 大覺을 이룬 부다가야에 있는 산이다. 부다가야도 가야산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부다가야의 산

4) Jonathan W. Best, "The Sōsan Triad: An Early Korean Buddhist Relief Sculpture from Paekche", *Archives of Asian Art* XXVII I(1980), pp. 89~106.

5) 이 점은 필자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① 文明大, 「韓國石窟寺院의 研究」, 『歷史學報』 38(1968), p. 117.

② ———, 『韓國彫刻史』(悅話堂, 1980), pp. 127~128 참조.

③ ———, 「泰安百濟磨崖三尊佛像의 新研究」, 『佛教美術研究』 제2집(1995. 10), pp. 1~26.

6) 文明大, 「佛教遺蹟」, 『瑞山圈域文化遺蹟』(瑞山文化院, 1996), pp. 281~282.

즉 大覺山이라는 뜻으로 불교권에서는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부다가야나 가야산이나 같은 뜻으로 연상하여 大覺을 상징하고 싶은 산일 경우 가야산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애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합천 가야산과 함께 서산 가야산도 불교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聖山으로 널리 인식되어 많은 사찰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 서산 마애불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가야산과 상왕산이 마주치는 사이에 협곡이 수 km정도나 형성되어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이 협곡은 태안반도에서 공주나 부여로 가는 옛길〔旧道〕이었다. 협곡에서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는 병목 부분에 서산 마애불은 자리잡고 있다. 옛 사원들은 시가지나 마을 부근 혹은 길목에 占定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었는데 서산 마애불은 절경의 길목에 자리잡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길목은 특별히 중요시되는 위치로 평가되고 있다. 태안반도에서 수도로 가는 길목은 단순한 길목이 아니라 중국 山東이나 南朝를 통한 文化 交流上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안 일대는 중국과 文物를 교역하던 항구〔開市浦〕로써 저명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⁷⁾ 가까운 山東 또는 먼 南朝의 문물이 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한 이 항구를 통해서 백제의 문물이 그 곳으로 들어갔다고 보여진다.⁸⁾ 새로운 타입의 대륙문화 특히 불교문화가 이 관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파급을 미쳤고, 그 가운데 마애불 형식도 가장 먼저 들어와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태안의 항구와 수도 부여 사이에서 가장 우수한 절경이자 鎭山인 가야협곡은 불교문화가 일찍부터 꽃필 수 있는 충분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백제 최고의 마애불이 태안의 백화산에 이어 가야협곡에 조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당시 백제의 불교는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는 南朝佛敎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후 隋·唐代에는 수도지역의 불교가 주로 수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후 600년 전후에는 법화·열반사상 등이 보다 많이 유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위덕왕(威德王 : 553~597), 무왕(武王 : 600~640), 성왕(聖王 : 523~553) 등 세 명의 왕이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중반에 걸쳐 1세기라는 장구한 기간을 집권하면서 국력을 크게 신장하면서 불교문화를 보다 화려하게 꽃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번성하던 불교문화를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마애불 형식인 서산의 마애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文明大, 「泰安百濟磨崖三尊佛像의 新研究」, pp. 1~26.

8) 김원룡 교수는 서산 마애불의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古代韓國의 石佛」(1965)에서 주장하고 있다.

IV. 現狀과 圖像形式

1. 현상

瑞山 磨崖三尊佛像은 현재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저수지 상류에서 보원사로 빠지는 잘록하게 좁아진 가야협곡의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계곡의 강당 절터에서 올라다 보면 동쪽으로 印바위라는 높은 암벽이 눈에 띄게 자리잡고 있고 이 바위 동면에 삼존불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마애불이 보이지 않아서 오랫동안 이 지역 사람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삼존불은 뒤늦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삼존불은 암벽의 동면, 튀어나온 턱 아래쪽의 한 단 들어간 암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本尊佛立像과 좌우로 左 半跏思惟像, 右 菩薩立像의 삼존불이 고부조로 새겨져 있다. 이러한 삼존구도는 태안 마애삼존불의 좌우 불입상과 중앙 보살입상의 특이한 삼존구도와 함께 아직까지 세계의 유일무이한 삼존구도로서 크게 주목되고 있다.

1) 本尊佛立像 (圖 2)

본존불입상은 목중하고 중후한 형태로 正面向하여 서 있다. 그러나 얼굴은 만면에 미소를 띄면서, 명암을 뚜렷하고 풍부하게 나타내어 독특하고 참신한 개성미를 보여주고 있다. 둥글고 복스러운 얼굴에 입을 다물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뺨을 한껏 팽창하여 만만한 웃음을 짓고 있는 유쾌한 얼굴은 한국인 가운데 젊고 쾌활한 長者風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특유한 부드러움과 세련된 조각미는 백제인들의 독특한 수법이며, 따라서 이 유쾌한 미소는 '백제미소'로 명명되고 있다.⁹⁾

눈은 행실형(杏實形=은행씨 모양)이고 눈시울은 볼록하며 古式의 눈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눈은 중생제도에 전념하는, 행동하는 대승적인 佛眼이다. 마투라 불상에 표현된 이러한 눈은 중국 초기 불상에도 즐겨 묘사되었지만 서산 마애불에서는 백제적으로 승화되어 가장 독특한 개성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코밑[鼻翹]이 넓고 두터워 큼직한 코가 되었는데 입과 인중이 조화되어 佛顏을 생기있게 만들고 있다. 입은 오무리면서도 양끝을 위로 올려서 보조개를 형성하여 미소를 띄게 했는데, 미소 띤 눈과 팽창된 뺨과 더불어 유쾌한 미소를 짓게 한 것이다. 귀는 큼직하면서도 세부를 양감있게 표현하였으며, 이에 비해 이마에는 백호구멍이 작게 표현되어 있다. 이런 얼굴은 태안 마애불의 佛顏과도 다른 특징이며, 보다 古式에 가까운

9) 金元龍 교수와 金載元씨 등이 주장한 이래 통설로 되고 있다.

편이라 하겠다. 이러한 얼굴의 원류는 중국 四川 萬佛寺址의 永明元年銘佛像(圖 3)이나 석가 불좌상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山東 興國寺 石佛立像이나 河清二年銘(563)石碑像(圖 4) 등 北齊佛像과의 관련성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¹⁰⁾ 그러나 이 얼굴은 어디까지나 백제적으로 발전된 새롭고도 참신한 스타일이며, 자비무한하고 순진무구한 백제불교적 理想을 잘 표현한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본존의 체구는 웅대한 편이다. 어깨가 넓고 당당하며 등글면서도 역동감있게 처리하여 육중하게 보이며, 하체도 넓고 묵중하여 전체적으로 웅대한 체구를 자랑하고 있다. 바로 이웃한 태안 마애불상의 장대성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태안 마애불상의 강직한 장대성과는 달리 서산 마애불상이 좀더 온화하게 육중한 불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은 6세기 후반기에서부터 7세기 전반기까지 삼국불상의 주류적인 경향의 하나였음이 분명하지만 현재 많은 예가 남아 있지 못한 편이다. 이러한 특징의 원류는 중국 山西나 山東의 北齊 내지 隋樣式的 불상에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백제적인 특징과 성격이 그 근거를 이루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불상은 가슴이나 허리, 다리 등 신체의 굴곡이 표현되지 않아 원통형 체구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두꺼운 佛衣에 싸여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즉 通肩한 大衣는 가슴에 U자로 넓고 길게 그리면서 발가락까지 묵중하게 흘러내렸는데, 가슴의 U字 옷깃은 굽고 돌출한 띠주름으로 태안 마애불과 비슷하지만 다소 부드러워진 것이 다른 점이라 할까. 층단과 선각으로 이루어진 하체의 U字 주름과 양 손목에서 흘러 내려 ㄱ字를 이루는 하단의 옷주름 등은 태안 마애불보다 좀더 평판적이고 한결 유연하지만 굽은 발가락을 덮고 있는 묵직한 下衣 끝단의 도식적인 처리는 단석산석굴 彌勒佛立像에서도 보이듯이 이 시기의 특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北魏式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특징이다. 또한 y形 승각기[上內衣]나 이를 묶은 띠매듭 역시 태안 마애불과 동일하다. 특히 띠매듭은 태안 마애불 매듭보다 실타래처럼 한번 꼬아 멧을 내고 있는 것이 진전된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띠매듭은 띠자락[紳]이 길게 내려진 중국식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간 모양으로 삼국시대 불상의 독특한 특징이다. 일본에서도 삼국시대 불상과 동일한 형식이어서 일본의 고대 불상이 삼국시대 불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이 점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삼국시대 불상의 특징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은 手印이다. 오른손의 施無畏印과 왼손의 與願印의 새끼손가락[小指]과 藥指를 구부린 특징있는 수인인데 태안 마애불(右佛像)은 두 손 모두 구부린데 비해 서산 마애불은 왼손 與願印의 한 손만 구부리고 있다. 이런 변형 수인은 중국의 북위불상에서부터 나타나지만 삼국시대 특히 백제불상에서 특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10) 『中國美術全集 彫塑 3』(人民出版社, 1988), 圖 122·147.



圖 2. 瑞山 磨崖三尊佛 本尊像



圖 3. 中國 四川 萬佛寺址의
永明元年銘佛像



圖 4. 河清2年銘石碑像
(563, 安徽省博物館)

광배는 寶珠形 頭光背로 신체에 비해서 유난히 큼직한 편인데, 머리 주위의 연꽃무늬[蓮花紋]와 불꽃무늬[火焰紋]로 구성되어 있다. 연꽃은 삼각형 끝이지만 부드러운 백제막새기와 연꽃무늬식이어서 백제 특유의 연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불꽃무늬도 마찬가지로 역동적이면서도 부드러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연꽃 테두리 밖의 화염문 속에는 三尊化佛이 배치되어 있다. 합장하고 있는 坐佛의 삼존상은 過去7佛이라고들 말하고 있지만¹¹⁾ 과거·현재·미래의 三世佛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삼국시대 금동불 광배에 이 3化佛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산동지방 불상 광배에도 나타나 서로간의 유사점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¹²⁾

臺座는 연꽃대좌로 연꽃은 중심의 원만하고 부드러운 것과 좌우 각 2잎이 좌우로 곡선적 꽃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태안 마애불 대좌의 연꽃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것이다. 이런 연꽃무늬는 北齊 내지 隋의 특징이지만 이 연꽃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보다 유연하고 세련된 것으로 주목된다.

크기(法量) : 全高 280cm, 身高 205cm, 頭高×幅 : 42.5×30cm, 얼굴 : 28×25cm, 어깨너비 : 60cm, 광배 : 117.5×115cm, 대좌 : 16(높이)×90(너비)cm

2) 左(向右)彌勒半跏思惟像 (圖 5)

본존 석가불 왼쪽에는 반가사유상이 보다 유연하게 묘사되어 있다. 팔과 무릎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을 뿐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어서 특이한 삼존구도의 좌협시상을 이루고 있다.

二重圓光과 상부에 뾰족하게 처리하여 寶珠形을 이루게 한 특이한 頭光이 돋보이며, 내원 안에 12엽의 단판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이 연꽃은 백제 숫막새 기와의 부드러운 연꽃무늬와 동일한 것으로 본존불 광배의 것과 일치한다.

寶冠은 당초무늬와 유사한 무늬로 구성되었는데 상하로 꽃무늬를 새겨 멋진 花冠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대가 좌우로 내려가 보주형 목걸이를 지나 가슴까지 내려가고 있다. 얼굴은 가름하면서도 양감있게 표현하여 개성있는 표정을 보여 주고 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입가에 보조개를 짓고 뺨을 팽창시키면서 만면에 미소짓고 있는 얼굴은 소년적인 특유의 쾌활하고 활기찬 모습이다. 왼다리를 내리고 오른다리 발목을 왼다리 무릎 위에 올리면서 오른손을 오른쪽 뺨에 살짝 댄 특이한 半跏思惟姿勢로 앉아 있는 이 상은 기본적으로는 平川里 半跏思惟像과

11) Jonathan W. Best는 賢劫佛(現世佛)의 3번째 佛까지를 말하고 있다.

12) Jonathan W. Best의 앞글과 다음 글에서 참조할 수 있다. Wai-Kam Ho, "Notes on Chinese Sculpture from Northern Chi to Sui, Part I: Two Seated Stone Buddhas in the Cleveland Museum", *Archives of Asian Art* 22.(1968~1969)

비슷한 편이다. 그러나 이 상은 팽팽하고 짧은 상체로 생기찬 소년적인 체구를 보여주는데 젓가슴의 표현같은 양감은 없으나 평천리 반가사유상처럼 수척하지도 않고 국보83호 반가사유상처럼 날씬하지도 않는 독특한 모습이라고 하겠다. 오른쪽 무릎은 굽고, 내린 왼쪽 다리도 묵직한 편이지만 상체와 조화되고 있다. 허리에 띠를 묶은 채 하체로 내려간 裳衣는 주름을 이루면서 좌우로 넓게 퍼져 하체와 의자를 덮어 내리고 있다. 이런 특징은 평천리 반가사유상과 비슷하지만 송화산 반가사유상과(圖 6)¹³⁾ 가장 근사한 편이다. 특히 무릎으로 내려간 U字 주름이나 ㄱ字 주름 등이 송화산상보다 다소 간략화된 것 외에는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대좌의 연화좌는 송화산상이 양련인데 비하여 복련인 것이 다르며 또한 좀더 부드럽고 세련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소산 납석제 반가사유상과 같은 백제계라고 할 수 없으며¹⁴⁾ 평천리 반가사유상(圖 7), 국보83호 반가사유상 등과 같은 계열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圖 5. 瑞山 磨崖三尊佛 左 彌勒菩薩半跏思惟像



圖 6. 松花山 石半跏思惟像

13) 松花山 반가상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 ① 黃壽永, 「新羅半跏思惟石像」(『李弘植博士回甲論叢』, 1969).
- ② 朱秀浣, 「新羅 石造半跏思惟像 研究」, 『佛教美術研究』 3·4, pp. 157~179.

14) 百濟系 半跏思惟像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 大西修也, 「百濟半跏思惟像の系譜について」, 『佛教藝術』 158.



圖 7. 高句麗 平川里 金銅半跏思惟像

따라서 백제 반가사유상도 한 계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계열로 파악할 수 있다.¹⁵⁾

크기(法量) : 全高 166cm, 身高 109cm

3) 右(向左)捧寶珠菩薩立像 (圖 8)

본존불의 오른쪽에는 보살입상이 반가사유상과 異形對稱으로 서있다. 광배나 대좌는 모두 좌협시 반가사유상과 동일하지만 입상형태는 古式의 바탕이 있는 날씬한 長身형이다. 얼굴은 반가사유상보다 한결 가름한 미인형으로 가는 눈, 작은 입, 통통한 뺨, 만만한 미소는 백제미의 전형적인 얼굴이다. 신리 금동보살상이나 규암 보살상 얼굴과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훨씬 우아하고 부드러운 미인얼굴이다. 또한 법륜사 백제 관음상이나 구세관음상의 얼굴과 유사한 형이지만 보다 과격적인 미소를 띤 면

에서 훨씬 뛰어난 편이다. 머리 위의 높은 高冠은 정면의 삼각형 장식과 주위의 꽃무늬문양이 새겨진 것으로 인도 마투라보살상 보관에서부터 유래해서 중국을 거쳐 삼국시대 보살상에 나타나며, 일본 법륜사 금당 삼존협시상 등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觀松院 백제반가사유상의 보관과 가장 비슷하며 국보78호 반가사유상 보관(圖 9)도 이 계통에 속한다.

신체는 法隆寺 백제관음처럼 현격한 장신은 아니지만 비교적 날씬한 장신형이다. 나신의 신체나 세로로 주름잡힌 裳衣를 입은 하체, 그리고 팔에서 흘러내린 U字 天衣 등은 기본적으로 天龍山 보살입상(540~560) 등과 친연성을 가지면서 다소 진전된 北齊式의 영향이 보이며, 일본에 있는 보살계인 백제 구세관음이나 백제 관음보살상과 유사한 편이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보주를 감싸고 있는 것은 구세관음과 유사하고 특히 거창 관음보살상과 일치하며, 더구나 法隆寺 獻納165·166호 상 등 동경국립박물관 관음상과도 상당히 비슷한 것이다.

크기(法量) : 全高 171cm, 身高 127.5cm, 얼굴 : 15(길이)×14(너비), 어깨너비 : 28.5cm, 광배 : 50×56.5(높이)cm, 대좌 : 19×59.5(너비)cm

15) 百濟系 半跏思惟像은 扶蘇山像처럼 왼다리 무릎과 오른쪽 裳懸에 좌우대칭으로 U字주름을 짓는 것이 특징인데, 평천리 반가사유상과 송화산 반가사유상이나 서산 반가사유상은 상현에 U字주름이 없고 오히려 비스듬하게 2단 주름이 표현되었다.



圖 8. 瑞山 磨崖三尊佛 右 提華羯羅菩薩像



圖 9. 國寶78號 金銅彌勒半跏思惟像 머리부분

V. 樣式的 特徵과 編年

서산 마애삼존불상은 한국적인 석조불상을 최초로 완성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양식적 특징과 편년을 구명하고자 한다.

1. 樣式的 特徵

서산 마애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백제인들이 이제 그들의 美的 觀點에서 부처님의 지고 지순한 모습을 비로소 마음 먹은대로 탁월하게 구현해 낼 수 있었구나하는 감탄을 하게 된다. 딱딱한 화강암으로 어떻게 이러한 순진 무구하고 쾌활한 佛性을 백제적으로 잘 표현한 佛顏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꽤 오랜 노하우가 집적되어 가장 백제적인 불상을 세련되게 나타내었을 것이다. 물론 신체의 양감이 사실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비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역강성과 소박성을 보여주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 된다. 이러한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구도의 문제이다(圖 10). 태안 마애불의 二佛並立像 사이에 보살입상을 배치한 특이한 삼존구도와는 달리 본존불입상에 左 半跏思惟像, 右 菩薩立像이라는 기발한 삼존불상을 이루고 있어서 이 또한 세계 초유의 삼존구도인 것이다. 좌우 보살입상의 좌우 同形對稱이 아니라 左 半跏思惟像, 右 菩薩立像이라는 異形對稱을 이루어 또 하나의 파격적인 구도미를 보여주고 있다. 백제인들은 이런 파격적인 미를 가장 즐겨 애용했던 것으로 믿어지지만 이 삼존구도는 정말 기발한 착상이 아닐 수 없다. 불상 왼쪽(向右)의 바위면이 보다 낮고 협소한 점도 참작되었을 것이고, 造成의 思想的인 面도 고려되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또한 異形의 대칭미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백제인들은 유난히 변화를 좋아했고 참신한 창조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왼쪽의 반가사유자세가 주는 변화와 긴장감을 삼존구도에 활용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와 동일한 조성 사상에 의한 동일한 삼존구도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인도의 나식석굴 자연석굴[禪窟] 왼쪽 벽면에 특이한 구도가 있고 운강석굴 1洞에도 반가사유상이 있는 삼존이 있지만 다소 유사하다는 점 외에는 다른 것이다.

둘째, 형태적인 특징이다. 서산 마애불은 장신형에 속하지만 태안 마애불상 보다는 덜 장대하며 다만 당당한 면에서 비슷하나 좀더 원만해진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깨가 한결 둥글고 원만하며 체구는 묵중하지만 다소 양감이 느껴지도록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다. 태안 마애불의 역강한 힘보다는 원만함과 부드러운 아름다움이 서산 마애불의 특징인 것이다. 특히 서산 마애불 본존의 은행알모양[杏實形]의 둥근 눈, 뺨을 팽창시키고, 입가에 보조개를 만들어 만면에 미소를 띄게 한 한국적인 장자풍의 얼굴은 가장 한국적인 부처님 얼굴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군수리 석불좌상, 국보78호 미륵반가사유상의 한국적인 얼굴 특징 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진 모습이어서 가장 한국적인 자연스러운 얼굴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얼굴형은 인도·서역·중국·동남아·일본 등 어디에도 없는 佛顏이며, 가장 한국적인 새로운 佛顏을 창조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드럽고도 원만하며 순진 무구한 얼굴과 티끌하나 없을 듯한 쾌활한 미소는 세계 최고의 새로운 佛顏스타일인 셈이다. 金元龍 교수가 이 미소를 '백제미소'로 규정한 이래 그렇게 이해되고 있지만 30대 한국인 청년의 참신하고 인자한 장자풍 얼굴을 佛顏으로 승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¹⁶⁾

16) 발견 직후, 서울신문사 강당에서 黃壽永 박사가 서산 마애불의 얼굴을 슬라이드로 비추었을 때 황박사의 얼굴과 본존불의 얼굴이 너무나 닮아 온 청중들이 자발적인 탄성과 박수로 이를 이구동성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圖 10. 瑞山 磨崖三尊佛

반가사유상의 유쾌한 얼굴과 짧고 통통한 상체는 본존과 일맥상통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스톤미술관 등 北齊 때의 반가사유상에 기반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오른쪽 보살입상도 본존과 함께 기본적으로 장신형의 北齊式인데 가름하고 통통하며 만만한 미소 띤 얼굴은 고구려식 금동보살입상 얼굴이나 신리 금동보살입상 얼굴 등과 비슷한 유형이지만 보다 부드럽고 한결 세련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복제 보살상들에 기본 바탕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보살상은 중국 보살상과는 판연히 차이가 나서 완전히 백제식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형태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드럽고 유연하며 원만하고 세련된 새로운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양감과 선의 특징이다. 형태미와 마찬가지로 얼굴의 양감이 풍부하지만 부드럽고 온화하며 원만한 면이 삼존상 모두에 잘 표현되어 있다. 태안 마애불의 강직한 양감보다는 상당히 유연하고 풍부한 편인 것이다. 이러한 유연한 양감은 삼존상의 부드러운 형태미와 함께 이 불상을 더욱 온화하게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 온화함은 단순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힘을 함축하고 있는 이른바 힘을 기본 바탕으로 한 온화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外柔內剛의 세련미라 할까.

넷째, 선도 양감과 형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연한 아름다움이 기초를 이룬다. 얼굴의 윤곽선이나 옷주름선 그리고 광배의 문양이 나타나고 있는 선의 미는 부드러우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이지만 이 선에는 내밀한 힘이 들어 있는 것이다. 속에 힘을 내재한 이런 선의 미는 서산마애삼존불이 백제미의 최고 수준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끝으로 무늬인데 이 가운데 연꽃무늬가 가장 특징적이다. 서산 마애불의 광배 연꽃과 대좌 연꽃은 날카롭게 외반하는 태안 마애불 연꽃무늬 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것인데 중국 복제 말의 연꽃무늬와 유사하여 이 연꽃의 발전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中國 南朝佛像樣式과의 연관 문제이다. 백제적인 온화하고 부드러운 아름다움은 흔히 南朝에서 유래된다고 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전통은 어느 정도 내재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크게 관련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6세기 후반기(4/4분기)에는 벌써 1세기 전부터 南北朝가 융합된 華化樣式이 발전되었기 때문이다.¹⁷⁾ 이런 양식적 특징은 당시 남북조불상 모두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어느 지

17)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① 文明大, 「對中國南北朝佛像樣式之新研究」, 『韓國傳統文化學術研討會』(中國杭州大韓國學研究所, 1997), pp. 72~83.

② 文明大, 「南北朝樣式問題와 梁中大同元年銘金石三尊佛像의 研究」, 『講座 美術史』 9호(1997), pp. 7~24.

역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해서 양식이 확연히 다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당시 백제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주로 南朝와 이루어졌기 때문에 南朝佛像樣式과 연관짓고 있다. 이 점은 梁 中大同元年銘金石三尊像(圖 11)에서 어느 정도 해답을 구할 수 있다. 부드러운 얼굴, 돌출한 옷깃, 법화경 사상에 의한 圖像 등 여러 면에서 이를 알 수 있지만¹⁸⁾ 직접적인 양식적 연관은 오히려 北齊佛像과 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앞으로 좀더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編年

앞에서 언급한 양식적 특징에서 서산 마애불의 造成編年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다른 상들과 비교 검토하여 그 편년을 정하고자 한다.

서산 마애삼존상의 조성 편년에 대해서는 600년경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이미 II 장에서 지적했다시피 이 가운데도 학자에 따라 다소의 가감이 있다.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한 黃壽永 박사는 600년경 백제시대로 비정하였고, 金元龍 교수는 7세기 중엽경으로 추정했으며, Jonathan W. Best는 620년경으로 보고 있다.¹⁹⁾ 물론 글쓴이도 大同小異하지만 600년 전후로 추정한 바 있다.²⁰⁾

이 가운데 필자 이외에 불상의 편년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이가 "Jonathan W. Best"이다. 그는

“서산 마애불상의 편년에 관계되는 2구의 백제불상이 있다. 이 가운데 첫째는 A.D. 596년에 해당하는 간지가 있고 서산 마애상처럼 백제의 북쪽지역에서 발견된 -원래 삼존이나 本尊失-在銘金銅斷片像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頭光의 3化佛 때문에 앞에서 주목한 적이 있다. 남아 있는 2보살의 양식은 서산 마애상보다는 덜 발전한 것인데 특히 通肩의 法衣와 고졸한 톱니형 윤곽선의 三尊에서 현저하게 느껴진다. 두번째 것은 서산 마애상과 편년될 수 있는 부여 규암 리사지출토 관음입상이다. 비록 이 보살상은 銘文이 없지만 삼각자세 등 隋後期 및 唐初期 중국작품과 현저한 유사성이 있어서 7세기 중엽경으로 편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서산 마애상은 이 두 점의 백제작 사이의 양식을 보여 주기 때문에 7세기 1/4분기, 더 정확히 말한다면 620년대로 편년할 수 있다.”²¹⁾

18) 앞의 註, 17-② 참조.

19) Jonathan W. Best, 앞의 글, p. 103.

20) 文明大, 註5 참조.

21) Jonathan W. Best, 앞의 글, 1980, pp. 102~103.

고 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서 이 삼존불상의 편년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丙辰年銘 釋迦佛光背와 규암출토 보살입상을 편년자료로 하여 620년이라는 조성년대를 추정해낸 것은 문제가 있다. 丙辰佛像光背는 우리 명칭으로는 建興五年銘을 가진 三尊佛光背(圖 12)이지만 본존 석가불이 없고 연대도 536년과 596년 등 두 說이 있으며, 국적 문제에 있어 출토지인 충북 중원군 노은면은 536년이라면 고구려, 596년이라면 신라지역에 해당하는 등 여러 說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²²⁾ 편년자료로서는 부적당한 것이다. 더구나 이 상은 6세기 3/4분기의 諸城縣博物館의 東魏 金銅三尊像(圖 13) 및 天平4年(537)銘石造釋迦佛立像, 龍門石窟 天平4年(537)銘佛立像 등 天平期の(534~537)²³⁾ 東魏佛像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536년일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불상으로는 癸未銘金銅三尊佛(圖 14)이나 景四年辛卯銘金銅三尊佛(圖 15)이 편년자료로서는 보다 적당할 것이다. 전자는 563년, 후자는 571년상으로 편년되고 있는데 본존상은 특히 景四年辛卯銘金銅三尊佛과 상당히 유사하다. 원만한 얼굴, 부드러운 체구, 새끼와 약지를 구부린 독특한 시무의·여원인, 묵중한 불의에 돌출웃김과 U자형 주름, 2단의 옷끝단 등에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제 양식을 보여주는 중국 산동의 여러 상들과 비교해 보면 이 불상의 편년을 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天保七年(556)銘金銅三尊佛立像(圖 16, 山東省博物館)의 三化佛光背, 보살의 U형 천의자락, 본존불의 온화한 얼굴, 수인, 부드러운 체구, U형의 돌출웃김, U형의 묵직한 佛衣, 대좌의 독특한 연꽃 등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양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²⁴⁾ 또한 河清二年銘造像碑(圖 4)의 본존불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보살상의 얼굴, 날씬한 체구, 무릎으로 내려진 U형 천의 자락 등은 諸城縣博物館의 北齊 金銅三尊菩薩立像(圖 17)의 협시보살상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²⁵⁾ 특히 무릎에 내려진 U형 천의자락은 北齊·北周보살상에 종종 보이는데 동·서위까지는 거의 볼 수 없던 새로운 스타일이며, X자 변형 천의자락과 함께 표현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사실 서산 마애불의 우협시

22) 文明大, 「영원을 갈구하는 역강한 미술」, 『韓國彫刻史』(열화당, 1980), pp. 113~114.

23) 松原三郎, 「中國彫刻」, 『東洋美術史』(吉川弘文館, 1972), pp. 294~295; 龍門文物保管所編 『龍門石窟』(文物出版社·平凡社, 1988).

24) 松原三郎, 『中國佛教彫刻史論』, 圖版編 二. p. 402.

25) 글쓴이는 1994년 6월 諸城縣博物館에서 박물관의 전폭적인 협조로 이들 금동불상들을 상세히 조사한 바 있다.

① 松原三郎, 앞의 책, p. 401.

② 金理那, 「高句麗 佛像彫刻樣式의 展開와 中國佛像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藝耕, 1996), pp. 75~126.



圖 11. 梁中大同元年銘金石三尊佛像(546)



圖 12. 建興5年銘金銅佛 光背



圖 13. 東魏初 金銅三尊佛立像(諸城縣博物館)



圖 14. 癸未銘金銅三尊佛像



圖 15. 景4年辛卯銘金銅三尊佛像



圖 16. 天保7年銘金銅三尊佛立像
(556, 山東省博物館)



圖 17. 金銅三尊菩薩立像(北齊, 諸城縣博物館)



圖 18. 金銅三尊菩薩立像(北齊, 諸城縣博物館)

보살의 U형 천의자락 때문에 隋·初唐까지 내려보는 경향이 있지만 山東諸城縣 金銅像이나 天龍山石窟의 동위말 내지 북제식(540~560) 보살상의 날씬한 체구, 목걸이, U형 천의, 세로 선 옷주름 등에서 보다시피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北齊·周 후반기와 隋代 불상의 협시 보살들은 오히려 천의보다 영락장식을 목중하게 장식하고 있어서 서산 삼존불의 보살상 天衣와는 상당히 다르며, 본존도 서산 불상처럼 목중하면서 원만한 상은 볼 수 없으므로 600년 이상은 넘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본존상의 당당한 형태, 목직한 佛衣, 돌출한 U형 옷깃, U형 옷주름 등은 앞장에서 언급했다시피 天平期(534~537)불상들 가령 天平四年銘石造三尊佛立像(圖 18), 天平四年銘 龍門石窟 外壁 佛立像 등 기본적으로 東魏 佛像들과 유사한 양식으로 판단되는데 북제식으로 변모되었지만 앞 시대의 양식도 상당히 남아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반가사유상도 중국 天保年間(550~559)의 반가사유상들 가령 天保二·四·七·八年銘半跏思惟像들과 기본적으로 같은 계통으로 생각되지만²⁶⁾ 물론 고구려의 평천리 반가사유상에서 진전된 신라 송화산 반가사유상계 양식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가장 주목되는 상은 태안 마애불상(圖 19)이다. 태안 마애불의 과격적인 미소, 건장한 체구, 목직한 佛衣, 돌출한 U자 옷깃과 띠매듭, 수인 등은 기본적으로 서산 마애불과 동일한 양식이다. 그러나 강직한 얼굴과 역강한 형태미 등은 서산 마애불의 온화한 아름다움과는 다른 면이 있어서 다소의 연대 차이는 인정되고 있다. 물론 태안 마애불의 보살상 무릎에 표현된 X자 변형 천의는 동·서위식 보살상 천의의 특징이므로 이런 점에서도 다소 이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안 마애불은 북위(圖 20) 내지 동·서위양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北齊式인데 비하여, 서산 마애불은 북위말(圖 21) 동·서위양식이 바탕이 된 북제양식과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상은 600년을 넘지 않은 불상으로 추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은 북제 북주 불상의 형태나 연화문(圖 23~27)에서도 분명히 밝힐 수 있다. 따라서 7세기 1/4분기 내지 7세기 중엽보다는 반세기는 이르게 편년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7세기 4/4분기 내지 600년경으로 편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26) 松原三郎, 앞의 책.



圖 19. 泰安 磨崖三尊佛立像



圖 20. 石佛立像(北魏, 青島博物館)



圖 21. 永熙3年銘三尊佛立像(534)



圖 22. 武定4年銘三尊佛立像
(546, 諸城縣博物館)



圖 23. 天保2年銘佛碑像(551)



圖 24. 天保8年銘佛碑像(557)



圖 25. 佛說法圖(北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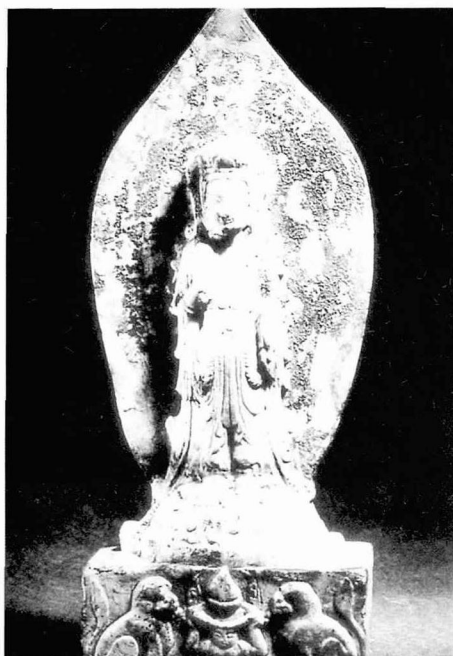


圖 26. 武定元年銘石菩薩立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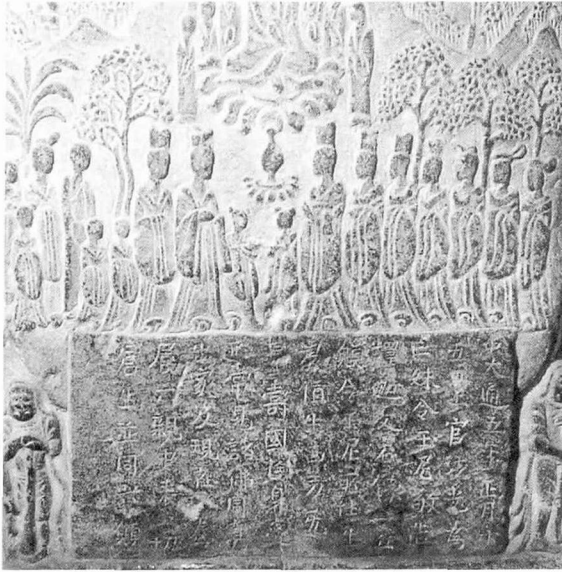


圖 27. 普通4年銘石佛群像(523)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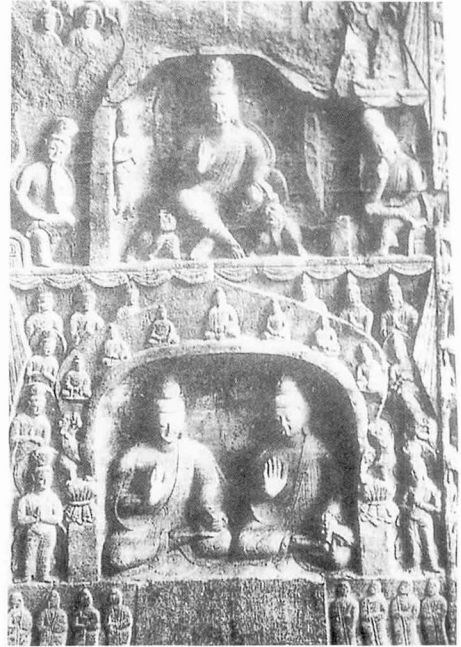


圖 28. 雲岡17窟東光窓三尊龕

VI. 圖像解釋(名稱)과 意義

서산 마애불과 태안 마애불의 명칭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밝힌 바 있다.

두 불상 모두 法華經思想에 의거한 불상임을 밝힌 것이다. 물론 태안 마애불은 운강석굴 17동 光窓 아래에 새겨진 上 彌勒交脚像, 下 釋迦·多寶竝坐像을 입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17굴 광창 3불상의 銘文에 489년 9월 19일 惠定比丘尼가 병의 완쾌를 기원해서 釋迦·多寶·彌勒 三佛像(圖 28)을 조성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²⁷⁾ 마애불은 본존 석가불, 左 미륵, 右 제화갈라보살로 구성되는데 이는 법화경의 수기사상(授記品·五百弟子授記品·授學無學人記品·法師品·如來壽量品)에 의해서 나타나는 삼존불이다. 조선시대의 응진전(나한전), 영산전, 팔상전 등의 주불 삼존은 부처님의 수기사상을 반영하는 사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²⁸⁾ 과거·현재·미래불은 모두 善行과 修行에 의한 果報로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27) 文明大, 「泰安百濟磨崖三尊佛像의 新研究」, 『佛教美術研究』 2, pp. 1~17 참조 및 雲岡石窟文物保管所, 『雲岡石窟』 2(平凡社, 1990), p. 254 및 圖 86·94·96·101·112·115 등.

28) 安震湖의 『釋門儀範』(1931, 八相殿·羅漢殿 條)에 다음과 같은 글이 이를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다.
志心歸命禮, 靈山不滅 鶴樹雙存 是我本師 釋迦牟尼佛
———, 左補處際斷輪回 提華羯羅菩薩

	불 상 명	중앙 본존	左 像	右 像	상 격
1	서산 불상	釋迦佛像	彌勒菩薩像	提華羯羅菩薩像	三世佛
					法華經授記品 (從池湧出品, 如來壽量品)
2	태안 불상	彌勒菩薩像	釋迦佛像	多寶佛像	三世佛
					法華經見寶塔品·如來壽量品

약속의 예언 즉 수기를 받아 부처가 된 분들이다. 과거불인 燃燈佛(Dipamkala=提華羯羅)은 그에게 진흙탕 길에 머리칼을 깔아준 功德 즉 착한 일을 한 석가에게 석가불의 수기를 주었고, 현재불인 석가불은 미래불인 미륵에게 미래에 미륵불이 되리라는 수기를 주어 부처가 되었다는 것이다. 聲聞·緣覺·菩薩·六道 등 일체중생 누구에게도 다 수기를 준다는 내용이 그 요지이다. 가령,

“묘법연화경의 한 계승, 한 구절이라도 듣고 한 생각동안 따라서 기뻐하는 이에게도 내가 아누다라삼막삼보리의 수기를 주노라.”²⁹⁾

라고 했듯이 총체적으로 누구에게나 수기를 준다는 것이다. 그 대표가 과거는 석가불, 현재는 미륵보살이니, 시간적인 수기불이라고 하겠다.³⁰⁾ 사실 燃燈佛이 석가에게 수기를 준 내용과 석가불이 미륵에게 수기를 준 것은 법화경의 從池湧出品과 如來壽量品에 분명히 강조되고 있다.

“선남자들아, 잠깐 기다려라. 여기 보살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은 미륵이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 이 다음에 成佛할 사람인데 지금 이것을 물어서 부처님이 곧 대답하시리니 그 대들은 스스로 듣게 되리라.”³¹⁾

이 때 미륵에 대해서는 彌勒三部經에 상세히 언급되었지만 이 授記作佛은 법화경에 수용되어 미래불로 강조되었던 것이다.

또한 燃燈佛도 如來壽量品에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 右補處三會龍華 慈氏彌勒菩薩

29) 鳩摩羅什 譯, 妙法蓮花經(以下: 法華經) 第10 法師品. (이운허역, 『묘법연화경』 상·하, 법보원, 1971, 한글역 참조) 原文 “若有人聞妙法華經乃至一偈一句一念隨喜者. 我亦與授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

30) 수기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① 田賀龍彦, 「授記と譬喩」, 『講座 大乘佛教 法華思想』(春秋社, 1983), pp. 167-192.

② —————, 『授記思想の源流と展開』(平樂社書店, 1974).

31) 法華經 第15 從池湧出品

原文 “諸善男子, 且待順耳, 有菩薩摩訶薩, 名曰彌勒, 釋迦牟尼之所授記, 次後作佛, 以聞斯事, 佛今答之, 汝等自當因時得聞”

“선남자들이, 이런 중간에 나는 연등불에게 법을 얻었노라 말하고 또 거기서 열반에 들었다 말했으니 이런 것이 다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니라.”³²⁾

이 언급은 석가불이 원래부터 구원의 佛이었지만 방편으로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았다고 한 것이지만, 이 수기야말로 석가불이 연등불에게 받은 수기가 오히려 크게 강조되어 과거 연등불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내용이 수기의 대표적 경전인 法華經에 결합되고 강조되어 三世의 授記佛로 종합된 것이다. 이러한 두 授記作佛思想이 法華經 授記作佛思想과 관련되어 造像化된 것은 중국에서는 늦어도 東·西魏時代 내지 北齊·周(梁·齊)時代부터이며, 성황을 이룬 것은 유가유식사상에 의한 미륵보살존상이 출현하면서 부터라고 하겠다. 그래서 석가(현세), 미륵(미래), 제화갈라(과거)의 삼세불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미륵보살은 범화경의 從池湧出品과 如來壽量品에서 중요시되었다. 사실 중국 北魏時代 雲岡과 龍門石窟의 미륵교각보살상은 法華經의 思想(從池湧出品이나 如來壽量品)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되고 있다.³³⁾ 글쓴이는 이미 태안 마애불의 미륵보살상과 다보·석가불 삼존상이 운강 석굴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운강 석굴 11굴의 並坐像과 미륵교각보살상은 한 조[一組]를 이루어 비구니의 병 완쾌를 기원하고자 조성하고 있는 예이므로 미륵상 형식은 다르지만 삼존형식은 태안 마애불의 선구로 평가된다.³⁴⁾

어쨌든 서산 마애불은 흔히 석가, 미륵, 관음의 삼존불로 보고 있지만,³⁵⁾ 法華經 授記作佛인 三世授記佛思想에 의한 본존 석가불, 左 미륵보살, 右 제화갈라보살의 삼존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도상의 특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左 반가사유상은 미륵보살상으로 비정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삼국시대인 6세기 후반 내지 7세기 전반기상들은 대부분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으로 추정되고 있다³⁶⁾. 중국도 북위 때는 교각보살상이 미륵보살상이었다가 東·西魏 내지 北齊·周부터는 반가사유상으로 도상적 특징이 변하는데 우리 나라는 6세기 후반기 반가사유상이 수용될 때부터 미륵보살상으로 정착되었다고 믿어진다. 또한 右 보살입상은 손에 寶珠를 잡고 있다고 해서 흔히 관음보살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필자는 捧寶珠手印은 당시 보살의

32) 法華經 如來壽量品

原文 “諸善男子，於是中間，我說燃燈佛等，又復言基其入於涅槃如是皆以方便分別”

33) 文明大, 「泰安百濟磨崖三尊佛像의 新研究」, p. 16.

34) 文明大 監修, 『雲岡石窟, 中國大陸의 文化』 5 참조 및 雲岡石窟文物研究所, 『雲岡石窟』 1(平凡社, 1990), 11굴 참조.

35) 앞의 제2장 研究史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36) 文明大, 「半跏思惟像의 圖像特徵과 名稱問題」, 『韓國佛教思想史』 下(1992).



圖 29. 梁中大同元年銘 金石三尊佛像

通印이기 때문에 관음보살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이미 밝힌 적이 있다. 捧寶珠手印은 관음보살을 포함하여 모든 보살에 통용될 수 있는 수인이기 때문에³⁷⁾ 이 보살입상은 어느 보살도 될 수 있다(圖 29). 더구나 관음보살상은 중국의 경우도 6세기 후반기(北齊周 이후)부터는 보관에 化佛과 손에 정병을 든 도상이 보편화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미륵보살과 대칭될 수 있는 보살은 제화갈라보살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서산 삼존상은 석가, 미륵, 제화갈라 三世授記作佛像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산 삼존불은 법화경의 수기사상에 의한 석가, 미륵, 제화갈라의 수기삼존상이기 때문에 태안 마애불과 함께 법화경 미술의 가장 이른 예로서 크게 주목된다.³⁸⁾ 백제는 일찍부터 법화경사상이 크게 발달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삼존상

은 법화경의 수기삼존상으로서 백제 불교의 특성을 잘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授記三尊像은 조선시대 應眞殿(16羅漢殿)의 본존삼존상으로 널리 보편화되었고, 석가불화에 서는 좌우보처 협시보살로 미륵·제화갈라가 대칭되게 그려지고 있다.³⁹⁾

燃燈佛은 Dipamkara로 불리는데 음역해서 일명 定光佛, 보살로는 提華羯羅로 부르고 있다. 법화경의 수기삼존으로 연등불이라 하지 않고 음역한 제화갈라보살로 규정한 것은 법화경사상의 一乘思想 때문에 어디까지나 석가불 외에는 佛로 부르지 않고 미륵, 제화갈라보살로 규정짓는 것이다. 따라서 석가불의 유일 절대성이 강조된 석가삼존의 구원(久遠)의 미가 내유의 강으로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불상이 가지는 백제불교 교단의 불상 조형의지를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커다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끝으로 이 서산 삼존상은 중국 山東 등 北齊佛像들과 깊은 관련 하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

37) 金理那 교수는 이른바 捧寶珠菩薩을 관음보살로 단정했다.(『三國時代 捧持寶珠形菩薩立像研究』, 『美術資料』 37, 1985,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pp. 85~145 收錄)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다.

朴宣暎, 『三國時代 觀音菩薩像의 研究』, 『佛教美術研究』 2(1995).

38) 文明大, 『泰安百濟磨崖三尊佛像의 新研究』(1995), p. 14.

39)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掛佛調査報告書』(1992), pp. 42~43, 圖 16.

다. 특히 山東 諸城縣 일대의 금동불상의 양식과 도상적 특징에서 상호관련성을 연구하여 그들의 국적문제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조각사 연구에 적잖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VII. 맺음 말

서산 마애삼존불상을 고찰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논의한 것은 첫째, 불상의 양식과 그 편년문제이고 둘째, 圖像解釋(名稱)과 그 意義問題였다. 첫째, 불상의 양식은 백제 특유의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내면적 힘이 잘 조화된 유연하고 세련된 백제양식을 완성하였고, 이에 따라 백제미소와 백제양식을 창조한 한국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이 걸작은 단순한 걸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석가의 절대성과 양 협시의 조화로 이루어진 석가불의 久遠의 아름다움이 정말 잘 조화된 힘과 세련미의 극치를 보여 주는 한국불상의 걸작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삼존상은 571년작 景4年銘金銅三尊像에 바탕을 두면서 泰安 磨崖佛에 연이어 제작된 6세기 4/4분기(575~600)경으로 좀 더 올려 編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게 되었다.

둘째, 불상의 명칭은 흔히 말해지고 있는 본존 석가불, 左 미륵, 右 관음이 아니라 석가, 미륵, 제화갈라보살의 法華經授記作佛의 三世佛像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명칭은 확실한 法華經典과 분명한 조성의지 및 도상형식을 확인한 전제 아래 논리적으로 도출한 것이므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나름대로 판단되므로 주목해주었으면 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명칭문제 뿐만 아니라 圖像解釋과 造像意志를 밝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조각사 연구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서산 마애삼존상은 삼국시대 특히 백제불교의 불상조성의지를 이해할 수 있고, 한국조각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당대 최고 걸작품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더구나 백제 미소와 백제 양식의 완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서산 삼존상은 우리와 가장 친근한 불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한다.

[ABSTRACT]

A New Interpretation on the Iconography of the Sōsan Triad of Paekche

Moon, Myung-dae

In this study on the Sōsan Buddha triad, I have examined two issues: 1) style and date; 2) iconography and religious meaning. Regarding the first issue, it is clear that this brilliant monument has achieved the perfection of Paekche's conception of beauty, which is characterized by warm tenderness harmonized with inner strength. For this reason, the triad of the Buddha and two assistant Bodhisattvas gained immortal grandeur and refined style which make it one of the finest works in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t sculpture.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we can infer that it was carved during the fourth quarter of the 6th century, following several earlier examples such as a gilt-bronze Buddha triad dated to 571 AD and the T'aean triad, which may well have served as models for the Sōsan triad.

With regards to its iconography, it is obvious that the triad consists of Śākyamuni, Maitreya and Dīpaṅkara, based on the account in the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account in this sutra and conventions in ancient Korean Buddhist iconography suggests that this identification is more plausible than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that regards it as consisting of Śākyamuni, Maitreya and Avalokiteśvara.